

# 通口一葉 『大つごもり』 論

—효녀와 불효자—

조혜숙\*

---

## 目次

---

들어가는 말

1. 효녀 오미네
  2. 불효자 이시노스케
  3. 선달그믐날
- 나오는 말
- 

## 들어가는 말

『大つごもり』는 1894(明治26)년 12월 「文学界」에 발표된 후, 이치요의 수정을 거쳐 1896년 2월 「太陽」에 재게재된 작품이다. (上)(下)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大つごもり』는 선달그믐날에 오미네(お峯)가 하녀살이 하는 집에서 돈을 훔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大つごもり』에는 몇 개인가의 대립항이 존재한다. 빈과 부, 인정의 세계와 금전의 세계, 금전의 축적과 낭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대립항은 『大つごもり』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어 왔다. 이 이외에 오미네와 이시노스케(石之助)도 『大つごもり』의 대립항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선행논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오미네는 다른 호적의 방계가족인 자신을 친자식같이 키워준 외삼촌 야스베(安兵衛)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효녀로, 이시노스케는 자신을 야마무라가

---

\* 단국대학교 강사, 일본근대문학

의 호적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안주인(御新造)과 야마무라가의 사람들에게 기묘한 「도락(道楽)」으로 울분을 갚아주는 불효자로 설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같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효·불효의 모습을 살펴 본 뒤, 오미네의 절도와 「차용증(受取)」을 남긴 이시노스케의 행동 등을 중심으로 두 사람에게 선달그믐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효녀 오미네

오미네는 「변덕쟁이(機嫌かい)」인 안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열심히만 일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마음먹고(勤め大事に骨さへ折らば御氣に入らぬ事も無き筈と定めて)」야마무라가의 하녀가 된다. 하지만, 야마무라가의 하녀 살이는 「열심히만 일하면」이라고 각오한 오미네에게도 힘겨운 일이었다. 「우물은 도르레로 줄길이가 22미터, 부엌은 북향이라 선달의 매서운 바람이 썩썩 불어오는 추위(井戸は車にて綱の長さ十二尋、勝手は北向きにて師走の空のから風ひゆうひゆうと吹ぬきの寒さ)」라고 묘사되고 있는 일터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아가씨의 「아침목욕(朝湯)」을 위해, 「물통 두 개에 넘치도록 물을 담아 열세번은 나르지 않으면 안(二つの手桶に溢るゝほど汲みて、十三は入れねば成ら)」되는 목욕통으로 「비지땀을 흘리면서(大汗に成りて)」물을 나르는 오미네의 모습에서는 노동의 가혹함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세상에서 하녀 부리는 사람도 많지만, 야마무라네처럼 하녀가 바뀌는 집은 없을 것이다. 한 달에 두 명은 예사이고, 사나흘 만에 나간 사람도 있으니 하루 밤 만에 도망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녀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물어보니 세는 손가락에 그 안주인의 소매가 무거워진다(世間に下女つかふ人も多けれど、山村ほど下女の替る家は有るまじ、月に二人は平常の事、三日四日に帰りもあれば一夜居て逃出しもあらん、開闢以來を尋ねたらば折る指に彼の内儀さまが袖口おもはるゝ)」라는 야마무라가의 사정은 야마무라가에서 하녀로 오랫동안 일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오미네는 이렇듯 편한 일자리라고는 할 수 없는 야마무라가에서 하녀살이를 약 1년 가까이 해냈던 것이다. 오미네의 충직한 근무태도는 「생각해 보니 오미네는 참을성 많은 아이. 그런 오미네에게 혹독하게 대하면 천벌을 받을꺼야. 동경이 넓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야마무라네 하녀가 될 사람은 없을 것이야. 기특한 것. 정말로 대단

한 마음가짐(思へばお峯は辛棒もの、あれに酷く当たれば天罰たちどころに、此後は東京広しといへども、山村の下女に成る物はあるまじ、感心なもの、美事の心が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였다.

오미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야마무라가에서 참을성 강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그녀가 하녀살이를 하게 된 「동기(動機)」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미네는 「의무를 넘어서 오미네를 친자식같이 길러준 외삼촌부부에 대한 보은(義務を超えてお峯を我が子同様に育ててくれた伯父夫婦に対する、報恩)」과 「고아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자립준비(孤児なるがゆえの自立準備)」<sup>1)</sup>를 위해 괴로워도 하녀살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미네는 야마무라가를 소개해 준 「소개소 할머니(受宿の老媪)」로부터 「그 집에 있기 싫어지면 나에게 엽서 한 장 보내요. 자세한 사정은 쓸 것 없고 다른 곳을 찾아달라고 하면 헛걸음하지 않을꺼예요. 여하튼 하녀살이의 요령은 잘 옮기는 것(厭やに成つたら私の所まで端書一枚、こまかき事は入らず、他所の口を探せとならば足は惜しまじ、何れ奉公の秘伝は裏表)」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이 「소개소 할머니」가 어드바이스 해 준 하녀살이의 요령은 많은 하녀를 보아 온 경험에서 산출된 것임에 틀림없다. 오미네는 「소개소 할머니」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서 적절히 보다 편한 일터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야마무라가에서 급료를 먼저 받았다고 해도 만약 급료를 선불로 지불해주는 다른 일터가 있다면, 야마무라가에서 받은 선불을 되돌려 주고 일터를 옮기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녀살이의 요령을 어드바이스 해 준 「소개소 할머니」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さても恐ろしき事を言ふ人)」이라고 반발심을 가지고 「뭐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또다시 이 사람 신세는 지지 않을꺼야. 열심히만 일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마음먹(何も我が心一つで又この人のお世話には成るまじ、勤め大事に骨さへ折らば御氣に入らぬ事も無き筈と定め)」은 오미네는 야마무라가에서 줄곧 열심히 일해 왔다. 오미네가 일터를 옮기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야마무라가에서 열심히 일한 것은 그녀를 길러준 외삼촌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7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9살 때에 어머니마저 잃어서 고아가 된 오미네를 7살 때부터 하녀살이 갈 때까지 약 10년간 길러 준 것은 외삼촌부부였다. 야채장사를 하는 외삼촌은 「정직한 야스베(正直安兵衛)」라고 불리고

1) 高田知波 「距離の物語 - 『大つごもり』 への一視点」, 『樋口一葉論への射程』, 双文社, 1997, p10-11

있다. 「적은 자본(薄元手)」으로 「언제나 장부에 적은 듯(何時も帳面につけた様)」한 물건밖에 준비하지 못하는 야스베에게 있어서 「정직(正直)」은 「생활을 보장(生活を保障)」<sup>2)</sup>하는 수단이었다. 야스베는 「정직」하게 장사함으로써 「단골(愛顧)」손님을 확보하여 「그럭저럭 세 식구 입에 풀칠하고 산노스케라고 하는 8살이 되는 아들을 오리학교에 보낼 정도의 의무도(曲りなり)にも親子三人の口をぬらして、三之助とて八歳になるを五厘学校に通はするほどの義務も)」 다할 수 있었다. 「정직」하게 장사함으로써 생계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야스베가 이제부터 하녀살이로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오미네에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하녀살이의 마음가짐으로 강조했다. 강조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 야스베는 이때 「첫 하녀살이(初奉公)」의 중요함도 함께 언급했을 것이다. 특별휴가를 받아서 찾아온 오미네에게 「첫 하녀살이가 중요하다. 참지 못해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주인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해라(初奉公が肝腎、辛棒がならで戻つたと思はれても成らねば、お主大事に勤めて呉れ)」라고 한 야스베의 말에서 그의 「첫 하녀살이」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부모 같이 생각하고 따른 야스베가 「첫 하녀살이」의 중요성과 하녀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오미네는 「소개소 할머니」의 말에 반발심을 가졌으며, 일터를 옮기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야마무라가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

오미네의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다. 야스베의 가르침대로 실천한 결과가 야마무라가에서 보인 성실한 근무태도라고 한다면, 오미네의 성실한 근무태도는 야스베에 대한 효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가르침이나 당부를 지킴으로써 부모를 안심시키고 기쁘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효행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오미네는 야마무라가의 성실한 하녀인 동시에 효녀이기도 했다.

「정직」하게 장사하여 생계를 꾸려왔던 야스베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9월말이었다. 야스베가 장사할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자리에 누워 버렸기 때문에, 일손을 잃고 생활이 곤궁하게 된 야스베 가족은 야채가게도 문을 닫고 같은 마을 뒷골목으로 이사하게 된다. 야스베의 상태를 알고 걱정하고 있었던 오미네가 겨우 병문안을 하러 갈 수 있게 된 것은 연극구경 대신에 특별휴가를 받은 12월 중순의 일이었다.

2) 山本欣司 「『大つごもり』を読む—『正直は我身の守り』をめぐる—」, 「立命館文学」, 1995・7, p58

오미네가 찾아간 외삼촌 집은 「6조 방 한 칸에 장 하나(六畳一間に一間の戸棚只一つ)」, 「전에 있던 화로는 온 데 간 데 없고, 상자에 든 싸구려 질화로만이 이 집의 가구다운 물건으로 듣자하니 뒤주도 없는 신세(見し長火鉢のかげも無く、今戸焼の四角なるを同じ形の箱に入れて、これがそもそも此家の道具らしき物、聞けば米櫃も無きよし)」인 곤궁한 상태였다. 오미네는 야스베 가족의 곤궁한 모습을 보고 「선달에 연극 구경하는 사람도 있는데(師走の空に芝居みる人も有るを)」라고 눈물지으면서, 한편으로 「숙모님도 어쩐지 야위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셔서 몸 상하시면 안 돼요(伯母様も何処やら瘦せが見えます、心配のあまり煩ふて下さりますな)」라든가 「외삼촌이 건강해지면 큰길가로 옮기는 것도 문제없는 일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쾌차하세요(伯父様御全快になれば表店に出るも訳なき事なれば、一日も早く快く成つて下され)」라고 말하면서 외삼촌가족을 계속 격려한다. 또, 오미네는 자신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손님(贖負)」에게 받아서 쓰고 남은 용돈과 「염낭주머니(巾着)」, 그리고 「장식용 덧 깃(半襟)」을 건네면서 「외삼촌 기뻐해주세요. 일하기 힘들지도 않아요(伯父さま喜んで下され、勤めにくくも御座んせぬ)」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쓸쓸하고 힘들지? 이번 설에는 누나가 뭐라도 사줄께(父さんが病気で淋しく愁らから、お正月も直きに来れば姉が何ぞ買って上げますぞえ)」라고 산노스케를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외삼촌일가를 어떻게든 격려하려고 했던 오미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 것은 조개를 팔아서 약값을 조달하는 산노스케 이야기를 들은 뒤였다. 「해고당하기라도 하면 아프신 외삼촌에게 심려만 더 끼치고, 여유롭지 못한 살림에 하루라도 신세를 지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お暇ともならば弥々病人の伯父に心配をかけ、瘦世帯に一日の厄介も気の毒)」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오미네가 산노스케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용서해 주세요(堪忍して下さい)」라고 사죄하고 「한창 학교 다닐 나이에 조개를 짚어지게 하고 누나가 어떻게 편안히 있을 수 있겠니. 외삼촌 그만두게 해 주세요. 저 이제 하녀살이는 그만두겠어요(学校ざかりの年に親を担がせて姉が長い着物きて居りようか、伯父さま暇を取つて下され、私は最早奉公はよします)」라며 「평정심을 잃(取亂し)」고 울기 시작한다. 이런 오미네에게 야스베는 하녀살이를 계속하도록 말한 후 9월말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3개월 기한으로(三月しぼりとて)」 10엔을 빌린 사실을 말하고 차용증을 다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이자 1엔 50전과 정월의 떡국 값 50전을 합한 2엔을 주인에게 말해 선달그믐날까지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잠시 생각하(しばらく思案し)」고 야스베의

부탁을 「망설임 없이 승낙(首尾よく受合)」한 오미네는 늦은 귀가가 2엔을 부탁하는 데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대로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간다.

오미네가 산노스케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평정심을 잃」은 이유, 그리고 2엔 조달이 「잠시 생각」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을 알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해서 高田知波 「距離の物語—『大つごもり』への一視点」<sup>3)</sup>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高田논문에 의하면, 하녀살이의 「동기」중 「자립준비(自立準備)」는 「무의식 안에서 외삼촌을 ‘타인’으로 보(無意識のうちに伯父を“他人”と見)」고 「언제까지나 외삼촌의 신세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자각(いつまでも伯父の厚意に甘えてい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自覚)」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산노스케의 이야기로 이러한 「자립준비」의 측면이 「한꺼번에 현재화 되(一挙に顕在化さ)」어 「야스베 가족의 빈곤한 상태를 매개로 산노스케에 대한 ‘떳떳치 못함’이 되어 오미네의 마음을 자극했기(安兵衛一家の窮状を媒介にして三之助に対する“後めたさ”となってお峯の内面に鋭くはねかえ)」 때문에 오미네는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미네는 「산노스케에 대한 ‘떳떳치 못함’을 떨치기 위해서(三之助に対する“後めたさ”から脱却するため)」라도 2엔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미네가 「평정심을 잃」은 이유와 2엔 조달을 받아들인 사정은 高田논문이 지적하는 대로여서 반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엔을 부탁하는 야스베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산노스케에 대한 ‘떳떳치 못함」뿐만 아니라, 하녀살이 하는 동안의 효행증명도 2엔 조달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하녀살이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오미네에게 야스베가 「첫 하녀살이가 중요하니, 참지 못해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주인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한 후에 「오미네의 주인은 시로가네노다이마을에서 집을 100채나 임대를 하니,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항상 우아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略) 그런 주인 밑에서 1년을 일했으니 마음에 드는 하녀가 돈을 조금 부탁하면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으실 것이다(お峯が主は白金の台町に貸長屋の百軒も持ちて、あがり物ばかりに常綺羅美々しく、(略)その主人に一年の馴染、気に入りの奉公人が少々の無心を聞かぬとは申されまじ)」라며 2엔조달을 부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첫 하녀살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첫 하녀살이가 중요하다」이하의 부분은 오

3) 高田知波, 前掲論文, p13-14

미네가 하녀살이를 결정했을 때에도 야스베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이 말은 하녀살이 하러 갈 때에 「첫 하녀살이」의 중요성과 함께 야스베에게 들은 「정직」이라는 하녀살이의 마음가짐까지 오미네가 떠올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야스베의 가르침을 떠올린 오미네에게 있어서 「그런 주인 밑에서 1년을 일했으니 마음에 드는 하녀가 돈을 조금 부탁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한 야스베의 말은 가르침을 지켜서 열심히 일했다면 2엔 조달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2엔 조달은 「오미네가 열심히 일한 증거(お峰の忠勤の証し)」<sup>4)</sup>인 동시에 효행의 증거이기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외삼촌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오미네는 「산노스케에 대한 ‘떳떳치 못함’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또 하녀살이 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 즉 효행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2엔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 2. 불효자 이시노스케

야마무라가의 「장손(総領息子)」인 이시노스케는 집안에서 「방탕아(放蕩)」라고 불리고 있다. 이시노스케는 「어머니가 다르니 아버지의 사랑도 작아, 이 아이를 양자로 보내고 이 집의 대는 여동생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잇게 하자는 상담을 10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재미가 없으니, (略) 마음 내키는 대로 놓고 어머니를 괴롭힐 심산으로 아버지 생각은 않고 15살의 봄부터 불량스러운 행동을 시작하였다(母の違ふに父親の愛も薄く、これを養子に出して家督は妹娘の中にとの相談、十年の昔しより耳に挟みて面白からず、今の世に勘当のならぬこそをかしけれ、思ひのまゝに遊びて母が泣きをと父親の事は忘れて、十五の春より不了簡をはじめぬ)」고 한다. 이시노스케는 「단지 난폭함만을 즐겨 시나가와 유곽에도 가기는 하지만 소란은 그 자리에서뿐, 한 밤중에 차를 내달려 구루마마치의 불량배들을 찾아가 잠을 깨우고, 술사라 안주. 라며 자기지갑을 털어서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는(唯乱暴一途に品川へも足は向くれど騒ぎは其座限り、夜中に車を飛ばして車町の破落戸がもとをとたき起し、それ酒かへ肴と、紙入れの底をはたきて無理を徹す)」 것을 「도락(道楽)」으로 즐기고 있다. 또, 「가난한 사람(貧乏人)」과 교류하는 것도 이시노스

4) 前田愛 「『大つごもり』の構造」, 『樋口一葉の世界』, 平凡社, 1978, p171

케의 「도락」 중 하나였다. 야마무라가가 「작년에 비해(去歲にくらべ)」서 「셋집도 늘(長屋もふふ)」어 「소득은 배가(所得は倍に)」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世間の口より)」 들은 이시노스케는 「이상하다 이상해. 그렇게 재산을 늘려서 누구 것으로 할 셈이지? 불은 등잔불에서도 나는 거야. 장손이라는 불똥이 될 줄은 모르는지. 언젠가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에게 좋은 정월을 맞게 해 주지라며 이사라꼬근처의 가난한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선달그믐날에 큰 술판을 벌릴 장소도 정했(をかしやをかしや、其やうに延ばして誰が物にする気ぞ、火事は灯明皿よりも出る物ぞかし、総領と名のる火の玉がころがるとは知らぬか、やがて巻きあげて貴様たちに好き正月をさせるぞと、伊皿子あたりの貧乏人を喜ばして、大晦日を当てに大呑みの場処もさだめ)」라고 한다.

이시노스케는 시나가와와 같은 유곽에서 노는 것보다도 「불량배」나 「가난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돈쓰는 것에 더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여성과 노는 것보다 남성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하층사회의 남성을 상대로 자기 「지갑을 털어서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이시노스케의 「도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노스케가 이처럼 특이하고 기묘한 「도락」을 즐기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야마무라가에서는 이시노스케의 생모가 사망한 후에 지금의 안주인을 후처로 맞은 듯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스러워 질 수 있을까? 저 아이를 낳은 어미얼굴이 보고 싶구나(何うすれば彼のやうに凶太くなられるか、あの子を生んだ母さんの顔がみたい)」라는 안주인의 말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시노스케의 생모가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언제 죽었는지, 그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작품 안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야마무라가의 「6(六人)」 형제 중에서 25살 전후라고 추정되는 이시노스케를 제외한 5명의 여동생들이 안주인이 낳은 아이들이고 선달그믐날에 초산을 한 「니시오지의 딸(西応寺の娘)」을 장녀라고 한다면, 이시노스케가 생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된다.

생모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시노스케는 계모인 안주인에게 생모에게 받은 애정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주인은 이시노스케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귀여워 한 적이 없었다. 안주인의 「애정(愛情)」은 「혈연(血縁)」으로 맺어져 있는 「친딸들(実の娘たち)」에게 한정<sup>5)</sup>되어 있어서 이시노스케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었다. 애정을 기대해도 받을 수 없

5) 前田愛, 前掲論文, p180

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시노스케에게 안주인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안주인이 이시노스케를 「양자로 보내고 이 집안의 대는 여동생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잇게 하자」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이시노스케는 안주인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쌓여서 또는 안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방탕(放蕩)」을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안주인에 대한 증오 때문에 「방탕」의 길로 들어서 헤매기 시작하였지만, 오랜 동안 애정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시노스케의 마음속에서 안주인에게 애정을 바라는 마음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시노스케가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안주인이 「결국 이 아이에게 상속하는 것은 기름 창고에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재산이 모두 연기가 되어 없어지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동생들도 불쌍합니다(到底これに相続は石油蔵へ火を入れるやうな物、身代烟りと成りて消え残る我等何とせん、あとの兄弟も不憫)」라고 「아버지에게 끊임없이(父に讒言の絶間なく)」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방탕아를 양자로 삼으려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꺼예요. 어찌되었건 있는 돈을 얼마정도 나누어주고 분가시켜 호적을 분리시킵시다라고 은밀한 논의를(さり)とて此放蕩子を養子にと申受人此世にはあるまじ、とかくは有金の何ほどを分けて、若隠居の別戸籍にと内々の相談)」 끝마쳤다. 이시노스케는 자신을 어떻게든지 내쫓으려고 하는 안주인을 계속 지켜보는 사이에, 안주인에 대해 애정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증오가 점차로 더욱 커져갔던 것은 아닐까? 더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야마무라가에서 내쫓으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푸는 안주인에게 이시노스케는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의 친절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언제나 의혹의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게 된 이시노스케는 생모로부터 받은 애정을 마음속에 봉인한 채로, 안주인 이외의 여성에게서 애정을 기대하는 일도 없이 여자를 싫어하게 되고, 모든 여성에게까지 마음을 닫아 버렸다고 생각된다. 다른 여성에게 애정을 기대했다면 시나가와에 자주 다녀도 좋을 테지만, 「시나가와 유곽에도 가기는 하지만 소란은 그 자리에서뿐」이라고 한다. 또, 「남자다운 다부진 용모에 영리해 보이는 눈매, 피부색은 검지만 멋있는 외모라고 이시노스케를 평가하는 주변 아가씨들의 소문(男振にがみありて利発らしき眼ざし、色は黒けれど好き様子とて四隣の娘どもが風説)」을 들어도 이시노스케는 그 아가씨들에게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시노스케가 모든 여성에게까지 마음을 닫아 버렸다고 한다면, 「소란

은 그 자리에서뿐」이라도 자신의 의지로 유곽에 가는 것은 역시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노스케에게 있어서 유곽출입은 일반 남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즐기기 위한 혹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시노스케는 유곽출입을 돈으로 여성을 가지고 노는 행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모로부터 받았던 애정을 찾아 헤매는 행위가 아니고 돈으로 여성을 가지고 노는 행위, 즉 유녀를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일종의 유녀학대로 유곽출입을 해석할 수 있다면,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여성에게 마음을 담은 이시노스케가 유곽에 다니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시노스케가 여자를 싫어하는 모습은 그가 즐기고 있는 「도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루마마치의 불량배」나 「이사라꼬근처의 가난한 사람」들과 마시고 떠드는 이시노스케의 「도락」에 대해서, 「빈민구제(貧民救濟)」의 측면이 있다고 보는 논고<sup>6)</sup>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시노스케는 이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등, 「빈민구제」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시노스케가 만약 이들을 대상으로 「빈민구제」를 해 왔다고 한다면, 구루마마치와 이사라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로가네에 위치한 야마무라가에서도 당연히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마무라가가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시노스케가 야마무라가의 풍부한 금전을 음식물로 바꾸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난한 일가의 가장들로 한정되어 있다.

일가의 가장들과만 마시고 떠드는 이시노스케의 행위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일이며, 예를 들어서 가장이 다음날에 일을 쉬었다고 한다면, 단 하루를 쉬는 것도 크게 영향을 받는 가난한 가정의 생활<sup>7)</sup>에 데미지를 주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이시노스케의 「도락」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가계를 꾸려나가는 그들의 안식구와 아이들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시노스케는 자신의 「도락」으로 인한 피해를 상상할 때에 여성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혐오감 때문에 아이들의

6) 橋本威「『大つごもり』」(『樋口一葉作品研究』, 和泉書院, 1990), 北川秋雄「『大つごもり』論—孝行ということ」(『一葉という現象—明治と樋口一葉』, 双文社, 1998)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집안의 가장이 일을 쉬는 것이 빈곤한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는 「9월 말(九月の末)」에 쓰러진 야스베가 「처음 자리에 누웠을 때, 다마치의 고리대금업자로부터 3개월 기한으로 10엔을 빌(そもそも床に就きたる時、田町の高利かしより三月しぱりとて十円かり)」린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존재를 잊어버리고 이들의 안식구에게만 의식을 집중시켜버린 것은 아닐까? 이시노스케가 자신의 「도락」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었던 가난한 이들의 안식구는 가게를 꾸려나가는 점에 있어서 자신의 새어머니인 안주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이시노스케는 그들의 안식구에게 안주인을 투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시노스케는 유곽에서 돈으로 여성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구를 곤란에 빠트리는 것에서 더 큰 쾌감을 얻었을 것이다. 이시노스케가 유곽에서 유녀를 확대하는 쾌감에 깊이 빠지는 일 없이 「그 자리에서뿐」인 유흥으로 끝내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시노스케가 안주인의 영향으로 여성에게 마음을 단고, 여성과 노는 것보다 남성과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층사회의 남성들을 상대로 「지갑을 털어서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도락」으로 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안주인은 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얼음에 미끄러져(氷にすべ)」 넘어져서 물통하나가 「밑이 빠지게 되었(底ぬけに成)」던 일로 안주인은 오미네에게 「재산이 이것 때문에 없어질 것처럼(身代これが為につぶれるかの様)」 「아침식사 준비 때부터 즐겨보고 그날 하루 종일 말도(朝飯のお給仕より睨まれて、其日一日物も)」 안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젓가락을 들고 내릴 때마다 이 집의 물건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주인 물건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야기했(一日おいてよりは箆の上げ下しに、此家の品は無代では出来ぬ、主の物とて粗末に思ふたら罰が当るぞえと明け暮れの談義、来る人毎に告げられ)」던 일이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문의 명예보다 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주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문의 명예가 중요하고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 들 수 없게 될까하는 걱정에 가까운 창고도 열게 된다(家の名をしく我が顔はづかしきに惜しき倉庫をも開く)」라고 묘사되고 있는 아버지는 스스로도 「창피함은 나의 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중요하다고는 해도 재산은 두 번째(恥は我が一代にとどまらず、重しといふとも身代は二の次)」라고 말하고 있다. 가문의 명예나 금전에 대해 아버지와 안주인 사이에는 분명한 견해차이가 있다. 이시노스케는 두 사람의 이러한 견해차이를 자신의 「방탕」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이사라꼬근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정월을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한 이시노스케는 설달그믐날에 그

자금을 받으려고 야마무라가를 방문해서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새해, 설날에는 얼마나 주실 겁니까? (略) 오늘밤이 기한인 빚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대신 보증을 서서 도장을 찍은 빚도 있고, 놀음한 빚도 있습니다. 불량배들한테 갚을 것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折からお目出度矢先、お歳暮には何ほど下さりますか (略) 今宵を期限の借金が御座る、人の受けに立ちて判を為たるもあれば、花見のむしろに狂風一陣、破落戸仲間に遣る物を遣らねば此納まりむづかしく、我れは詮方なけれどお名前に申わけなし

돈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불량배」들이 야마무라가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난폭하게 굴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문의 명예(家の名)」와 체면을 손상시키게 된다고 이시노스케는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재산보다도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꿰뚫어 보(見込)」고 있는 이시노스케는 야마무라가의 돈을 「이사라꼬근처의 가난한 사람」이나 「구루마마치의 불량배」와 교류하는 데에 쓰고 있다. 「이 낭비행위는 『정직성실』을 앞세운 야마무라가의 축적의 논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가난한 사람들과의 교류 그 자체가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배신을 의미하고 있다(この浪費行為は、『正直律儀』をタテマエとする山村家の蓄積の論理につきつけられたあからさまな挑戦であり、貧者との交歓そのものが家名と体面を辱しめる重大な裏切りを意味していた)」<sup>8)</sup>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금전의 낭비는 금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주인의 화를 돋우는 요인이며 야마무라가의 장손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면에서 매우 유효했던 것이다. 이시노스케는 「가문의 명예」나 금전에 대한 부모의 견해의 차이를 냉정하게 꿰뚫어 보고 하층사회 남자들과의 교류라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부모와 야마무라가의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에게 받은 울분을 되갚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노스케의 「방탕」이 고민거리였을 야마무라가에서는 이시노스케를 분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시노스케는 「분배금은 1만엔, 생활비를 매달 보내주고 자신의 유흥에 간섭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모를 대신할 자신을 오빠로 각듯이 받들고

8) 前田愛, 前掲論文, p189

부뚜막 신에게 소나무 한그루 올리는 것도 내 지시를 따를 생각이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분가하겠(分配金は一万、隠居扶持月々おこして、遊興に関を据へず、父上なくなれば親代りの我れ、兄上と捧げて竈の神の松一本も我が託宣を聞く心ならば、いかにもいかにも別戸の御主人に成)」라고 「빈정(嫌やがらせ)」 대고 분가이야기를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다. 이시노스케에게 대를 잇지 않게 하고 재산상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야마무라가에서는 폐적절차를 밟아서 이시노스케의 추정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했다. 前田正治 「明治初年の相続法」<sup>9)</sup>에 의하면, 「사망(亡没)」 「질환(廢篤疾)」을 제외한 장남의 폐적사유에 관해서 滋賀県은 1885(明治18)년 1월 26일에 받은 내무성호적국장의 内報를 바탕으로 1886(明治19)년 7월 21일 다음과 같이 폐적사유를 문의하였다고 한다.

그 외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폐적신청 하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자 또한 허가해야 하는지요? (중략)

- 상가에서 그 가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인이 그 가업을 싫어하고 다른 상업, 혹은 공업을 좋아하여 다른 집의 대를 이룰 것을 원하는 자.
- 학예 등의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 그 스승의 대를 이을 것을 원하거나, 혹은 기예와 관련하여 선조의 일을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 방탕하고 게으르며 품행이 단정치 않아서 앞으로 상속의 희망이 없는 자.
- 금고형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其他左記ノ事情ヲ以テ廢嫡願出願意不得止事情アルモノハ是又聽許シ可然哉 (中略)

- 商家ニシテ其家業ニ適セス又ハ自己其家業ヲ忌嫌シ他ノ商業又ハ工業ヲ好ミ他家ヲ嗣カンコトヲ求ムルモノ
- 学芸等ノ弟子師恩ニ羈セラレ其師家ヲ嗣カンコトヲ求メ又ハ技芸ニ係リ父祖ノ業ヲ嗣ク能ハサルモノ
- 放蕩遊惰不品行ニシテ前途相続ノ見込ナキモノ
- 禁錮以上ノ刑ニ処セラレタルモノ

이에 관해서 내무성은 「대체로 문의하신대로 입니다만, 각 조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도 그 사안의 경중, 부박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예규로 하여 허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허락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폐적신청을 제출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서 취

9) 前田正治 「明治初年の相続法」, <家族問題と家族法IV> 『相続』, 酒井書店, 1974, p137-138

조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大体御見解ノ通ニテ然ルヘシト雖モ該条件ニ於テハ不得止事情ト云フモ其実輕重厚薄ノ差別可有之一概ニ例規トシテ御聽許難相成モノニ付 出願ノ都度篤ト御取調御許否相成可然義ト思量候)」라고 조금 신중한 태도를 취한 회답을 했다고 한다. 앞에서 예로 들은 메이지민법시행 이전의 폐적사유를 보면, 「방탕(放蕩)」 「품행이 단정치 않음(不品行)」이 폐적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마무라가에서 이시노스케를 폐적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선달그믐날 「밤은 의젓(夜はをとなし)」 했다고 하는 이시노스케는 「동생들도 무서워하여 종기처럼 닿으려고 하는 아이도 없(妹ども怕がりて腫れ物のやうに障るものな)」는 데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평소에 「난폭하게(乱暴一途)」 행동해 온 듯하다. 이러한 이시노스케가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적했다는 통보를 받고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폐적이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로 부자의 인연을 끊는 「절연(勘当)」이 아닌 이상, 폐적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시노스케가 더욱 심한 「방탕」을 일삼는다면 가문의 명예는 그만큼 더 실추한다. 무엇보다도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아버지는 이시노스케의 「난폭(乱暴)」함을 알고 폐적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에는 책도 좀 읽었던(子供の時には本の少しものぞいた)」 이시노스케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꿰뚫어보고 「세상 사람들로 부터 나쁜 평가(世間に悪評)」를 받아도 신경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선달그믐날

오미네가 외삼촌일가의 사정을 말하고 돈을 부탁했을 때, 안주인은 「우물쭈물하면서 결국은 좋다(にやふやながら結局は宜し)」고 승낙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미네는 선달그믐날 집에 돌아온 이시노스케 때문에 기분이 상한 안주인으로부터 「너의 외삼촌의 병환, 그리고 빚 이야기도 들었지만, 때가 때이니 만큼 우리 집에서 빌려주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을 것(お前が伯父さんの病氣、つらいて借金の話しも聞かしたが、今が今私しの宅から立換へようとは言はなかつた筈)」이라며 부탁을 거절당했다. 어떻게든 2엔이 구하고 싶었던 오미네는 딸의 초산 소식을 듣고 외출하는 안주인과 엇갈려서 찾아온 산노스케에게 「서예상자 서랍에서 돈뭉치 중 단 2장(硯の引出しより、束のうちを唯二

枚)」을 꺼내서 건넨다. 그 날 밤, 「총결산(大勘定)」을 할 때, 서랍에서 이시노스케가 남긴 「차용증(受取)」이 발견되어 오미네가 「취조(詮議)」 당하는 일은 없었다. 오미네의 절도를 감추어 준 이시노스케의 행동에 대해서 화자는 「효의 여덕은 나도 모르게 이시노스케의 죄가 된 것인가? 아니, 아니 미리 알고 죄를 뒤집어 써 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시노스케는 오미네를 지켜주는 본존불상일 것이다. 나중의 일이 알고 싶구나(孝の余徳は我れ知らず石之助の罪に成りしか、いやいや知りて序に冠りし罪かも知れず、さらば石之助はお峯が守り本尊なるべし、後の事しりたや)」라고 평하고 있다.

오미네의 절도를 알고 한 행동인지, 우연의 결과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뉘었던 이시노스케의 행동에 대해 松板俊夫 『大つごもり』 論<sup>10)</sup>은 자고 있었다고 생각한 이시노스케야말로 오미네의 절도를 목격한 목격자이고 선의를 가지고 그녀를 구한 구제자임을 논증하였다. 松板논문이후, 『大つごもり』의 결말부분은 「나중의 일 알고 싶구나(後の事しりたや)」라는 맺음말까지 시야에 넣어 이시노스케가 오미네의 구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sup>11)</sup>. 이시노스케를 구제자로 보고 있는 논고는 물론이며, 구제자로 보고 있지 않은 다수의 논고도 松板논문에 동의의 뜻을 표하면서, 「차용증」을 남기고 돈을 가지고 간 이시노스케의 행동에 그의 선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시노스케의 행동은 선의에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시노스케가 「빈민구제」에 관심이 없는 점, 더욱이 여자를 싫어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왜 오미네를 도와주려 했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의 「코다츠에 두 다리(炬燵に両足)」를 넣고 「술개는 물을 물을(酔ざめの水を水を)」하고 소란을 피운 이시노스케를 위해서

10) 松板俊夫 「『大つごもり』 論」, 『樋口一葉研究』, 教育出版センター, 1970, p127-132

11) 이시노스케를 오미네의 구제자로 보고 있는 논고에 和田芳恵 「『大つごもり』 作品解説」 (<近代文学鑑賞講座 3> 『樋口一葉』, 角川書店, 1958), 前田愛 「『大つごもり』의 구조」 (주4참조), 関礼子 「贈与と主体化—『大つごもり』 論」 (『論集樋口一葉』 II, おうふう, 1998), 松板俊夫 「『大つごもり』 論」 (주10참조), 植田一夫 「『大つごもり』의 세계」 (『解釈』, 1975·10), 橋本威 「『大つごもり』」 (주6참조), 浅野洋 「『大つごもり』의 遠近法」 (『国文学 解釈と鑑賞』, 1995·6), 北田幸恵 「『大つごもり』 論—もう一つの<暗夜>—」 (『国文学 解釈と鑑賞』, 1995·6), 滝藤満義 「『大つごもり』—『はなし』의 方法—」 (『国語と国文学』, 1996·2) 등이 있다. 한편, 이시노스케를 오미네의 구제자로 볼 수 없다는 논고로는 木村真佐幸 「『大つごもり』 成立の背景—『後の事しりたや』 一視点—」 (『札幌大学教養部·女子短期大学部紀要』, 1975·3), 高田知波 「距離の物語—『大つごもり』 への一視点」 (주1참조), 後藤積 「『大つごもり』에 みる 金銭感覺」 (『商人としての樋口一葉』, 中央公論事業出版, 1979), 谷川恵一 「うつろな物語—一葉『大つごもり』」 (『言葉のゆくえ—明治二〇年代の文学—』, 平凡社, 1993) 등이 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담요를, 무엇을 쥐라하며 베개까지 받혀(風引かぬやうに小抱卷何くれと枕まで宛がひ)」 준 안주인은 「내일 쓸 무시리텐사꾸, 다른 사람 손을 빌리면 소홀해 진다고 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베개 밑에서 일부러 내비친(明日の支度のむしり田作、人手にかけては粗末になる物と聞えよがしの經濟を枕もとに見しらせ)」 다. 방문 목적이 금전요구인 것을 알고 있는 안주인이 일부러 한 이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라도, 이시노스케가 편히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지 않고 있었던 이시노스케의 베개 밑에서 오미네는 안주인에게 부탁한 돈 이야기를 꺼내어 거절당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오미네가 2엔을 부탁한 이유를 알게 된 이시노스케는 그녀가 2엔을 훔쳐서 산노스케에게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 혈연관계에 있다고 해도 직계친족도 아닌 백부가족을 절도까지 해서 도와주려고 한 오미네의 모습을 보고 이시노스케는 안주인과 달리 오미네가 큰 가족애의 소유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여성을 안주인과 동일시하여 마음을 달아 온 이시노스케는 오미네의 큰 가족애에 충격을 받고, 또 감동했기 때문에 그녀의 절도를 감추어 주었다고 생각된다.

『大つごもり』는 이시노스케가 오미네의 죄를 덮어준 선달그믐날이후를 환기시키는 「나중의 일 알고 싶구나」 라는 화자의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나중의 일」에 대해서, 오미네와 이시노스케의 관계성이나, 백부일가의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논고<sup>12)</sup>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미네와 이시노스케의 정신적인 측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木村真佐幸 「『大つごもり』成立の背景－『後の事しりたや』－視点」<sup>13)</sup>은 「죄의식(罪の意識)」과 「양심(良心)」이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心の葛藤)」이 오미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高田知波 「距離の物語－『大つごもり』への一視点」<sup>14)</sup>은 절도로 인해 「충실한 근무」

12) 우선 오미네와 이시노스케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笹淵友一 『文学界とその時代 下－「文学界」を焦点とする浪漫主義文学の研究－』(明治書院, 1960)는 「이시노스케, 오미네의 미래에 대한 낭만적 상상(石之助、お峰の未来に対する浪漫的想像)」이라고, 山田有策 『大つごもり』의 扉裏 「鑑賞」(『全集樋口一葉』第一卷, 小学館, 1979)은 「오미네와 이시노스케의 로맨스를 암시한 해피엔드(お峰と石之助のロマンスを暗示してのハッピー・エンド)」라고 적고 두 사람의 낭만적인 관계를 「나중의 일(後の事)」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高田知波 「距離の物語－『大つごもり』への一視点」(주1참조)과 小林裕子 「反転するモラル－『大つごもり』論」(『樋口一葉を読みなおす』, 学芸書林, 1994)은 두 사람 사이에 낭만적인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高田前掲論文은 백부일가의 경제 상태와 관련해서 백부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돈을 부탁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금전조달이 곤란한 오미네는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13) 木村真佐幸, 前掲論文, p27

14) 高田知波, 前掲論文, p20

에 대한 자부(“忠勤”への自負)를 잃었으며, 「『정직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철학(正直は我身の守り)という哲学)」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직(不正直)」으로 「전락(転落)」하는 등, 「첫 하녀살이」에 「다른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커버할 수 없는 흠집을 내 버렸다는 의식에서 오미네는 벗어날 수 없을 것(他の心がけによっては決してカヴァーし得ぬ瑕瑾を負ってしまったという意識からお峯は脱却できないはず)」이라고 논하고 있다. 「차용증」을 남긴 이시노스케의 행동은 분명 오미네를 도와주려 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정직은 나의 수호신, 도망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흠쳤다고 고백은 하자(正直は我身の守り、逃げもせず隠られもせず、欲かしらねど盗みましたと白状はしましょ)」라고 각오한 오미네에게서 결과적으로 죄를 고백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 때문에 오미네는 절도죄를 저지른 「죄의식」, 「충실한 근무」라는 「자부」와 「정직」이라는 「철학」의 상실, 또 「첫 하녀살이」에 「커버할 수 없는 흠집을 내 버렸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시노스케는 절도까지 하면서 외삼촌일가를 도우려고 한 오미네를 보고 감동하여 그녀의 죄를 덮어주었다. 그러나, 이시노스케를 감동시킨 오미네의 존재는 선달그믐날 이후에 그에게 고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을 것이다. 친자식에게만 애정을 쏟는 안주인을 보고 모든 여성을 안주인과 동일시해 왔던 이시노스케는 오미네가 큰 가족애를 지닌 여성이라고 알게 됨으로써 여성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안주인과 모든 여성을 동일시하여 마음을 달아 온 이시노스케는 안주인과 오미네를 포함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했을 것이다.

선달그믐날, 이시노스케와 오미네는 의식하고 있다·없다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상대방의 존재, 행동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견해,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의심도 해 보지 않았던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가지게 된 이시노스케, 지키고 따라온 자신의 가치관을 잃어버린 오미네가 지금부터 그 견해와 가치관을 어떻게 수정하고 확립해 나아가는지를 「나중의 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오는 말

「정직」하게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해 온 외삼촌 야스베에게 첫 하녀살이의 중요함과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하녀살이의 마음가짐으로 배웠다고 생각되는 오미네는 외삼촌의 말을 따라서 야마무라가에서 성실히 일했다. 외삼촌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효녀 오미네는 병문안을 하러 갔을 때, 외삼촌으로부터 선달그믐날까지 2엔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받는다. 오미네는 어려움에 처한 외삼촌일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산노스케에 대한 「땀땀치 못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하녀살이하는 동안의 효행을 증명하기 위해서 2엔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야마무라가에서 「방탕아」라고 불리고 있는 이시노스케는 「시나가와 유곽에도 가기는 하지만 소란은 그 자리에서뿐」으로 「불량배」나 「가난한 사람」들과 마시고 떠들면서 자기 「지갑을 털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는」 기묘한 「도락」을 즐기고 있다. 이시노스케가 기묘한 「도락」을 즐기는 「방탕아」가 된 것은 안주인과 깊은 관계가 있다. 생모와 같이 자신에게 애정을 쏟아주지 않는 안주인에게 원망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이시노스케는 자신을 「양자」로 보내자고 한 안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원한과 증오가 쌓여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다. 「방탕」한 생활을 시작해도 걱정은 고사하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안주인을 계속 보고 있는 동안에 안주인에게 원망과 증오가 증폭되어 혐오감을 가지게 된 이시노스케는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여성에게 마음을 단았기 때문에 여성보다도 남성과의 놀이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 이시노스케가 하층사회의 남성을 상대로 금전을 낭비하는 것은 아버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야마무라가의 「명예」와 「체면」을 더럽히고, 안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전을 낭비할 수 있는 등, 야마무라가의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화를 돋우는 데에 유효했기 때문이다.

선달그믐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정월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금을 받으러 집에 돌아온 이시노스케는 오미네의 절도를 목격하게 된다. 절도까지 하면서 외삼촌가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오미네의 큰 가족애에 충격을 받고 한편으로 감동한 이시노스케는 「차용증」을 남기고 서랍에 남은 돈을 가지고 감으로써 오미네의 절도를 덮어준다. 「차용증」을 남긴 이시노스케의 행동은 오미네의 죄를 덮어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오미네로

부터 결과적으로 죄를 고백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 때문에 오미네는 「죄의식」, 「충실한 근무」라는 「자부」와 「정직」이라는 「철학」의 상실, 더욱이 「첫 하녀살이」에 「커버할 수 없는 흠집을 내 버렸다는 의식」 속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안주인과 모든 여성을 동실시하여 여성에게 마음을 닫아 온 이시노스케는 오미네가 큰 가족애를 가진 여성이라고 알게 되어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시노스케는 이제부터 안주인과 오미네를 포함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신을 야마무라가의 호적에서 빼내려고 하는 안주인과 야마무라가의 사람들에게 기묘한 「도락」으로 울분을 되갚아 주고 있는 불효자 이시노스케. 다른 호적의 방계친족인 자신을 친자식처럼 길러준 외삼촌 야스베에게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효녀 오미네. 『大つごもり』에는 이처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서로 상대의 존재와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가지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제부터 자신의 견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게 된 모습이 선달그믐날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lt;작품인용&gt;

- ・『樋口一葉全集』第一卷, 筑摩書房, 1974

## &lt;참고문헌&gt;

- ・浅野洋 「『大つごもり』の遠近法」, 「国文学 解釈と鑑賞」, 1995・6
- ・植田一夫 「『大つごもり』の世界」, 「解釈」, 1975・10
- ・北川秋雄 「『大つごもり』論－孝行ということ」, 『一葉という現象－明治と樋口一葉』, 双文社, 1998
- ・北田幸恵 「『大つごもり』論－もう一つの<暗夜>－」, 「国文学 解釈と鑑賞」, 1995・6
- ・木村真佐幸 「『大つごもり』成立の背景－『後の事しりたや』一視点－」, 「札幌大学 教養部・女子短期大学部紀要」, 1975・3, p27
- ・小林裕子 「反転するモラル－『大つごもり』論」, 『樋口一葉を読みなおす』, 学芸書林, 1994
- ・後藤積 「『大つごもり』にみる金銭感覚」, 『商人としての樋口一葉』, 中央公論事業出版, 1979
- ・笹淵友一 『文学界とその時代 下－「文学界」を焦点とする浪漫主義文学の研究－』, 明治書院, 1960
- ・関礼子 「贈与と主体化－『大つごもり』論」, 『論集樋口一葉』Ⅱ, おうふう, 1998
- ・高田知波 「距離の物語－『大つごもり』への一視点」, 『樋口一葉論への射程』, 双文社, 1997, p10-20
- ・滝藤満義 「『大つごもり』－『はなし』の方法－」, 「国語と国文学」, 1996・2
- ・谷川恵一 「うつろな物語－一葉『大つごもり』」, 『言葉のゆえ－明治二〇年代の文学 一』, 平凡社, 1993
- ・橋本威 「『大つごもり』」, 『樋口一葉作品研究』, 和泉書院, 1990
- ・前田愛 「『大つごもり』の構造」, 『樋口一葉の世界』, 平凡社, 1978, p171-189
- ・前田正治 「明治初年の相続法」, <家族問題と家族法Ⅳ> 『相続』, 酒井書店, 1974, p137-138
- ・松坂俊夫 「『大つごもり』論」, 『樋口一葉研究』, 教育出版センター, 1970, p127-132
- ・山田有策 『全集樋口一葉』第一卷, 小学館, 1979
- ・山本欣司 「『大つごもり』を読む－『正直は我身の守り』をめぐって－」, 「立命館文学」, 1995・7, p58
- ・和田芳恵 「『大つごもり』作品解説」, <近代文学鑑賞講座 3> 『樋口一葉』, 角川書店, 1958

## 要旨

「正直」に商売することで生計を立ててきた伯父安兵衛から、初奉公の大事さとともに「正直」に働くことを奉公の心得として教わったと思われるお峯は、伯父の言葉に従って山村家で忠勤してきた。伯父の言葉に逆らわない孝行娘のお峯は、伯父のお見舞いに駆けつけた時、伯父から大晦日までに二円を調達してくれようと依頼される。貧困状態に追い込まれた伯父一家を助きたい気持ちもあっただろうが、お峯は三之助に対する「後めたさ」から「脱却」するためにも、奉公に出ている間の孝行を証明するためにも、二円を調達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山村家で「放蕩」と呼ばれている石之助は、「品川へも足は向くれど騒ぎは其座限り」で「破落戸」や「貧乏人」たちと飲んで騒ぎながら、「紙入れの底をはたきて無理を徹す」奇妙な「道楽」を楽しんでいる。石之助が奇妙な「道楽」を楽しむ「放蕩」になったのは、御新造と深い関係がある。実母のように自分に愛情を注いでくれない御新造に、恨みや憎しみを抱いた石之助は、「養子」話によってその恨みや憎しみを刺激されて「放蕩」を始める。

「放蕩」を始めると心配どころか、表では親切に接しながら裏では自分を山村家から追い出そうと動く御新造を見続けるうちに、御新造に嫌悪感を抱いた石之助は、女嫌いになって女性に心を閉ざしたため、女性よりも男性との遊びを好むようになったと見られる。また、石之助が下層社会の男性を相手に金銭を浪費するのは、父親がもっとも重視する山村家の「家名」・「体面」を辱め、御新造が大事に思う金銭を浪費することができるなど、山村家の人々を困らせ、怒らせることに有効だったからである。

大晦日、「貧乏人」たちに「好き正月をさせる」ための資金を貰いに帰宅した石之助は、お峯の盗みを目撃する。盗みまで犯して伯父家族を助けようとするお峯の大きな家族愛に衝撃を受け、また感心した石之助は、「受取」を残して引出しの残り分を持ち出し、彼女の盗みを隠してあげる。「受取」を残した石之助の行動は、お峯の盗みを露見させなかったものの、それと同時に罪を白状しようとした彼女から結果的にその機会を奪ってしまった。そのため、お峯は盗みを犯した「罪の意識」、「忠勤」という「自負」や「正直」という「哲学」の喪失、さらに「初奉公」に「カヴァーし得ぬ瑕瑾を負ってしまったという意識」を抱えて、これからどうすればよいのか悩ま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一方、御新造とすべての女性を同一視して女性に心を閉ざしてきた石之助は、お峯が大きな家族愛を持っている女性だと知って、今まで女性に関して持っていた自分の見解に疑問を抱いたと思われる。よって、石之助はこれから御新造もお峯も含めて女性という存在について考え直さ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のである。

自分を山村家の戸籍から抜こうとする御新造および山村家の人々に、奇妙な「道楽」で鬱憤を返す不孝息子の石之助。別戸籍の傍系家族なのに直系家族のように育ててくれた伯父の安兵衛などに報恩を試みる孝行娘のお峯。『大つごもり』ではこのように対照的な二人がお互いに相手の存在・行動に影響され、自分の見解に疑問を抱いたり自分の価値観を失ったりしたことによって、これから自分の見解や価値観などについて思いどようになったことが大晦日の中

心に描かれている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樋口一葉、大つごもり、孝行娘、不孝息子、大晦日、相続、戸籍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110-5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1동 72-77

電 話 : 010-3132-7573

e-mail : [chohaesuk@yahoo.co.kr](mailto:chohaesuk@yahoo.co.kr)